

# 서울 송현동(松峴洞) 일원 역사문화경관의 통시적 연구

강재웅\* · 소현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

## A Diachronic Study on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of Songhyeon-dong, Seoul

Kang, Jae-Ung\* · So, Hyun-Su\*\*

\*Master's Course, Graduate School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In accordance with planning to construct culture park on Songhyeon-dong (district) near Gyeongbokgung Palace, This study analyzed literature and drawings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to today for the district, known as 'Songhyeon (pine hill)' to identify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s during essential time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First, the owners of significant lots were identified, and land use and landscape components were extracted for a diachronic examination of the landscape of the whole area of Songhyeon-dong. Songhyeon district had been regarded as the 'Inner Blue Dragon (Spot) of Gyeongbokgung Palace' in terms of geomancy since the foundation of Joseon in 1392 in that the government created and managed a 'pine forest' in the district. A state warehouse called 'bungam' was constructed, and small fruit stores, 'ujeon,' opened due to the complete reformation and urban planning led by King Taejong in 1410. From the 19th century, mansions of the upper class, such as 'Gaseonggak', 'Changnyeongwuigung' and 'Byeoksugeosajeong' were in the district. A prominent official residential complex called 'Sigeun Sataek' was constructed in 1919 after Chosen Siksan Bank purchased the site. Later, it was transferred to America in 1948 and used as the 'US Embassy Staff Quarters'.

Second, the changes in the site view, associated with the aspects of society by the times, were examined by estimating the location and the time the landscape components lasted in each period extracted and identifying the physical entity. The pine forest, regarded as the 'Inner Blue Dragon' that guards the left side of the palace within the geomantic world view, was located in the highlands in the west of the site. In the same period, the flat area in the east was regarded as the 'commoner's district', the streets adjacent to various government facilities and the market, packed with people from different walks of life. From the 19th century, the gardens of the aristocrats of the capital city were created in the pine forest, turning the place into the forest in the middle of the city. The whole area of Songhyeon-dong, which existed as a large lot in the city center for a long time, was developed by Japanese imperialists in the 20th century based on the concept of 'Ideal Healthy Land,' which interrupted the placeness of Songhyeon-dong that had adhered to the traditional geomantic view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Commoner's District, Culture Park, Owner, Site View, Urban Fores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복궁 옆 송현동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된 사실을 배경으로 '송현(松峴)'이라는 장소가 인식되었던 조선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문헌과 도면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시기의 역사문화경관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South Korea. Tel.: +82-2-6490-2848, E-mail: hssso@uos.ac.kr

첫째, 송현동 일원의 경관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주요 필지의 소유주를 파악하고 토지이용과 경관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1392년 조선의 건국 이래 송현은 풍수지리사상에 의하여 ‘경복궁의 내청룡(內青龍)’으로 이해됨에 따라 국가에 의해 ‘소나무숲’이 관리되었다. 1410년 태종이 실시한 전제 개혁과 도시계획의 영향으로 국가 창고 ‘분감(分監)’이 세워지고 영세한 과일가게 ‘우전(隅廛)’이 조성되었다. 19세기 이후에는 상류층 가옥으로서 ‘가성각(嘉聲閣)’, ‘창녕위궁(昌寧尉宮)’, ‘벽수거사정(碧樹居士亭)’이 존재하였다. 1919년 조선식산은행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규모 관사단지인 ‘식은사택(殖銀舍宅)’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1948년 미국으로 이양되어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사용되었다.

둘째, 도출한 시기별 경관구성요소의 존속기간과 함께 위치를 비정하여 물리적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시대별 사회상과 결부된 입지관(立地觀)의 변천을 확인하였다. 풍수지리적 세계관 속에서 궁궐의 원편을 비보(裨補)하는 ‘내청룡’으로 인식된 소나무숲은 부지 서쪽 고지대에 있었다. 동시기 동쪽의 평坦한 구역은 각종 정부시설과 시장에 인접한 길목에 다양한 계층이 모여드는 ‘여향(閭巷)’으로 여겨졌다. 19세기 이후 소나무숲에는 경화세족(京華世族)의 원림이 들어서 ‘성시산림(城市山林)’으로 이해되었다. 오랫동안 도심 속 대형 필지로 존재하였던 송현동 일원은 20세기 일제에 의해 ‘이상적 건강지(理想的 健康地)’라는 관념 아래 개발되었다. 이로써 조선시대 전통적 복거관(卜居觀)을 고수해 온 송현동 일원의 장소성이 단절된 것이다.

주제어: 문화공원, 성시산림, 소유주, 여행, 입지관

1. 서로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松峴洞)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북촌과 인사동을 잇는 길목에 위치하는데(그림 1a), 동명(洞名)은 조선 초부터 일대에 소나무가 많아 ‘솔고개’, ‘솔재’라 불렸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이곳은 해방 이래 주한미국대사관의 직원 숙소로 이용되면서 높은 담으로 둘러져 110년 가까운 시간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1997년 삼성그룹을 시작으로 2008년 대한항공이 부지를 인수하여 문화시설과 한옥호텔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궁궐과 학교로 둘러싸인 입지로 인한 각종 규제로 도심 속 거대한 콘터로 남게 되었다.

2019년 대한항공이 경영난을 이유로 부지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이듬해 서울시는 “역사의 케와 숨결을 간직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장소”임을 근거로 하여[1], 총면적 37,117m<sup>2</sup>에

이르는 송현동 48번지 일원을 공원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림 1b).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2021년 8월 서울시의 부지 획득이 확정되어 ‘송현 숲 문화공원’ 조성을 앞두고 있으며, 11월 현재 부지에 ‘이전희 기증관(가칭)’을 건립하기로 결정되었다.

역사성을 회복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문화공원 사업을 위해서는 송현동 일원의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광, 조경, 건축 분야에서 선행된 소수의 연구는 부지의 설계 방안 제시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마저도 '송현'이라는 지명을 근거로 한 소나무숲 회복만으로 장소성을 이해한 한계를 보인다[2][3][4]. 따라서 본 연구는 수백 년에 걸쳐 송현동 일원에 입지한 경관요소들의 물리적 실체에 접근함으로써 역사문화경관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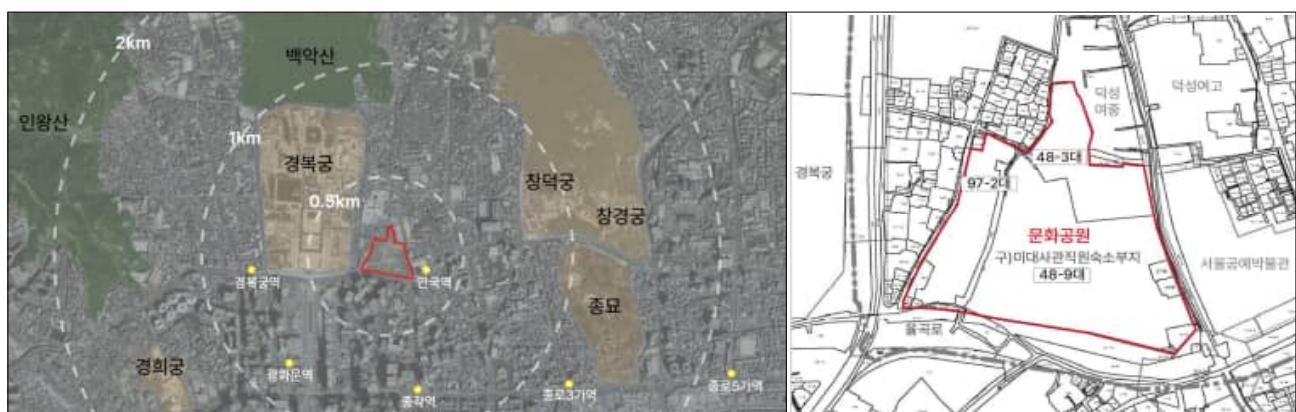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공가적 범위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송현동 일원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적다는 사실에 대응하여 조선시대 아래 소유주를 찾아서 그들의 행적을 기반으로 특질을 갖는 경관의 변이 지점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장소로서 '송현'이 인식되는 조선 초기부터 부지의 기능이 사라지고 건물들이 멀어진 2003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문화공원 사업 부지인 송현동 48번지 일원(사간동 97-2, 송현동 48-3, 48-9)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조선왕조실록과 문집 등 문헌자료를 통해 시기별 주요 필지의 소유주를 파악하고 토지이용 행태에 따른 경관 변화의 기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고지도, 고서화부터 근대 측량도와 위성사진 등 도면자료를 고찰하여 대상지 내부에서 인지된 개별 장소들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가로, 필지구획 등 경관구성요소의 물리적 실체를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기능적, 경관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는 송현동 일원의 역사문화경관요소들을 등장한 시간순으로 나열하여 이에 작용한 시대적 배경과 환경적 요인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장소의 존속기간에 따른 위치와 규모를 특정하여 평면에 배치함으로써 송현동 일원의 중층적 역사문화경관을 해석하였다.

표 1. 시기별 소유주를 파악한 분석 자료

분석 자료		소유주
문헌	도면	
조선왕조실록 속대전	한양전도(1780) 수선총도(19C 중)	1392~1746 한성부(호조)
조선왕조실록 풍선헌집 지수염필 한경지략 화하만필 임하필기	수선전도(1864)	18C 말~1830 심상규(沈象奎)
조선왕조실록 임하필기	수선전도(1864)	1830~1905 김병주(金炳疇) 김석진(金奭鎮)
광무호적(신식호적) 황성신문	한국경성전도(1903)	1905~1906 민병석(閔丙奭)
토지조사부 황성신문 조선일보 벽수거사정도 기문	벽수거사정도(1909) 경성부시가도(1911) 지적원도(1912) 경성도(1917)	1906~1936 윤덕영(尹德榮) 윤택영(尹澤榮)
동아일보 경성부사	경성도(1922) 경성정밀지도(1933) 대경성부대관(1936)	1919~1945 조선식산은행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위성사진 (1947, 1962, 1980, 2003)	1948~1997 주한미국대사관

## III. 결과 및 고찰

### 1. 송현동 일원의 통시적 경관

#### 1) 경복궁의 내청룡 : 소나무숲

한양의 입지는 백악산(북악산)을 주산으로 두고, 좌청룡에 해당하는 타락산(낙산), 우백호에 인왕산, 남쪽에 목멱산(남산)을 두었으며, 조선왕조는 이러한 사신사(四神砂)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나무를 심고 관리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복궁을 조성하는 1392년부터 15세기 말 성종조까지 경복궁의 왼편 소나무 언덕[松峴]을 내청룡(內青龍)으로 여겨 관리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또한 각종 고지도에 '松峴'이라고 명시됨으로써 조선 초기부터 인식되었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경복궁 좌강(左岡)의 솔[松]이 마르므로, 그 가까이 있는 인가(人家)를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태조실록』 7년 4월 16일(5)

"청천대 경복궁의 주산(主山)과 좌비(左臂) 산맥에 소나무를 심고 그 온방의 인가를 모두 옮기소서."

『세종실록』 10년 1월 6일(5)

"병조에서 제하기를, "이에 앞서 수교(受敎)에, '궁성(宮城)의 동문 밖에 소나무를 심을 적에 각품(各品)의 품종(品從)을 부역(賦役)시키고..."

『세종실록』 11년 4월 2일(5)

경복궁의 왼편 소나무 언덕의 위치는 궁궐 가까이에 있던 관청과 주거지에 대한 기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왼쪽 팔 되는 가각고(架閣庫) 서편 산맥이 벗물의 개캡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떨어진 곳이 매우 많으므로..."

『세종실록』 15년 7월 21일(5)

"경복궁은 백호가 높고 험준하나, 청룡(靑龍)이 낮고 미약하므로 가각고 북쪽 산의 내려온 맥에 소나무를 심어 길렀는데..."

『문종실록』 1년 4월 18일(5)

"장원서(掌苑署) 북침(北站)에서 중학(中學)까지는 바로 경복궁의 내청룡에 해당되는데, 산세가 낮고 약하다고 하여 궁초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 지맥(地脈)을 배양(培養)하였습니다. … 또 장원서의 남쪽 양정(楊汀)의 집 앞길도 경복궁의 왼쪽 팔[左臂]에 해당하는 산맥으로서 가장 중요한 곳인데도 인물(人物)이 통행하

며 땅을 파고 침범하여 훼손시키니,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곳도> 마땅히 막아서 나무를 심게 하소서.”

『성종실록』 12년 1월 20일[5]

“경복궁 청통은 장원서 북쪽 고개로부터 가각고에 이르는데, 그 산등성이 너비가 20척쯤 됩니다. 전에는 나무를 심어서 산맥을 보호하였는데, 지난날에 양정의 집이 그 곁에 있어서 침점(侵占)하여 담을 쌓았고, 영웅대군(永膺大君) 집<sup>1)</sup>에서 또 산등성을 파고 집을 지었으며 …”

『성종실록』 1년 2월 12일[5]

가각고(架閣庫)는 각종 기록물을 보관하던 관청인데, 정확한 위치는 전해지지 않으나 태조 때부터 경복궁을 기준으로 윈쪽 가장자리 산맥에 연하는 북부 관광방(觀光坊)<sup>2)</sup>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6]. 『성종실록』의 “장원서(掌苑署)에서 중학(中學)까지”라는 기록에 해당하는 영역은 백악산 지맥이 회색으로 표현된 「한양전도(1780년대)」에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그림 2). 즉, 경복궁의 내청룡으로 인식되던 소나무숲은 지도상 벽동(壁洞) 일대를 지칭한 것이며, 송현이라고 불린 고갯길은 지금의 안국역까지 넓게 표현되었다.

1934년 『경성부사(京城府史)』에 기술된 “겸재의 조감도에 따르면 이 언저리에도 소나무가 울창하게 그려져 있다”[7]로부터 도심 속 무성한 송림(松林)이 정선이 실경(實景)을 그리던 18세기 중엽까지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내청룡의 지형은 19세기 말 촬영된 사진에서도 확인된다(그림 3).

## 2) 재화의 집결지 : 송현 분감(分監)과 우전(隅塞)

### (1) 송현 분감

공양왕 2년(1390) 군사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조선 건국세력은 왕실의 보물을 보관하는 소부시(小府寺)

와 전곡의 문서를 관장하던 전수도감(轉輸都監)을 폐지하고 군자사(軍資寺)를 설치하였다. 이는 고려 왕실의 재원을 이성계 세력에게 이양시킴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였다[10].

조선 건국 이후, 군자사는 ‘군자감(軍資監)’으로 개칭하고 군량을 담당하였다. 1400년부터 태종은 군자전(軍資田)<sup>3)</sup>을 확대 시켜 국가의 전제 운영을 일원화하는 전제 개혁을 펼쳤다. 이로써 군자감은 대규모 국고의 곡식까지 관리하는 조선의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태종 9년(1409)에는 군자감이 재화를 관리하는 호조(戶曹) 소속이 되고 곡식을 수용할 창고 증설이 필요하자 광통교의 본감(本監), 용산의 강감(江監), 송현의 분감(分監)<sup>4)</sup>이 추가되어 군자 3감이 되었다.

송현 분감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중종실록』에 본감에는 곡식 15만 석을 두고, 송현과 용산에는 각각 28만 석과 30만 석을 보관하였다고 기록되었다<sup>5)</sup>. 증설 당시 용산 군자감의 창고가 84칸(間)<sup>6)</sup>에 이른 것에 미루어 볼 때, 송현 분감도 80여 칸의 규모를 가진 대형 창고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송현 분감은 1410년 전후 설치되어 영조 22년(1746)까지<sup>7)</sup> 존속되었다.

앞서 파악한 바와 같이 동십자각(東十字閣)에서 안국으로 향하는 길은 소나무가 무성하여 송현이라는 지명을 얻은 언덕이었고, 송현 분감은 그 북부에 좌우 양편으로 길게 행랑을 이어 창고로 사용하는 구조였다. 전국에서 국곡이 모여들었으므로 이 일대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야간 순찰이 강화되었으며, 80여 칸에 달하는 거대한 행랑 외에도 건축물 벽체와 이격 시킨 방화 및 방범 목적의 담장이 조성되었다<sup>8)</sup>.

“송현(松峴) 좌우 행랑에 쌓아 둔 군자감의 미곡이 도둑 맞을까 염려됩니다. 청천대 밤마다 승경(巡更) 때에 고지기(庫直)가 목생(木性)을 승관에게 주어서 …”

『문종실록』 1년 7월 20일[5]



그림 2. 「한양전도(1780년대)」 송현 일대에 표현된 지맥[8]



그림 3. 내청룡에서 내려다본 경복궁(1876~1888년 추정)[9]

“군자감(軍資監)의 용산강감(龍山江監)의 각 창고를 송현창(松峴倉)의 예에 의하여 벽(壁) 바깥에 담장을 쌓아라…군자감의 송현 좌우의 행랑고(行廊庫)가 차고 넘치고 그 아래 동행랑 20간(間)과 서행랑 15간에 잡인(雜人)이 거주하는데 방화(防火) 담장이 없으니…거주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방화 담장을 쌓고 후년의 전세를 거두어 간수하도록 하라.”

『세조실록』 10년 8월 3일(5)

한편 세종이 총애했던 막내아들 영웅대군(永膺大君)의 안국동 집터를 정하던 기록<sup>9)</sup>을 통하여 조선 초기 송현 일대의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그림 4). 인근이 여염(閨闥)에 둘러싸여 민가를 60여 구를 철거하고 저자[市]와 가까운 곳에 제택(第宅)<sup>10)</sup>을 지었다는 기록과 앞서 확인한 분감 행랑고에 잡인이 들어 살았고 초기에는 담장이 없어 여염 속에 섞여들어 자리하였다는 사실에서 조선 후기까지도 부지 북동쪽 일대 대형 필지에 분감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 「수선총도(19세기 중반)」의 송현과 벽동 일원[8]

## (2) 우전(隅廛)

한양은 건설 초기부터 공랑을 형성하여 궁궐, 시전(市廛), 주거지를 구획하는 도시 구조를 갖추었다[11]. 15세기 말 현물로 반입하던 공물(貢物)을 한양의 시장에서 구매하여 관청에 납부하는 경중방납(京中防納)과 무납(貿納)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시전상업이 성장하였고[12], 17세기 후반 국제 교역의 활성화를 계기로 한양은 육상과 해상 교역로를 모두 갖춘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상공업이 번영하면서 자본이 축적되고 경영 방식이 변화하면서 시전이 분화되었다. 즉, 시전은 국역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상품 유통 특권을 보장한 행랑을 부여받는 ‘유분각전’

(有分각廛)과 국역을 부담하지 않는 영세한 규모의 ‘무분각전(無分各廛)’으로 구성된다. 조선 후기에 늘어난 무분각전 중에는 각종 과일을 취급하던 상점으로 길모퉁이에 자리한 데서 유래된 우전(隅廛)이 있었는데, 도성 내 6곳 중 하나가 송현에 있었다.

우전과 같은 무분각전은 ‘여항소시(閭巷小市)’ 형태였다. ‘백성의 살림집이 많은 골목 내 작은 저자’로서 영세 상인들이 자신의 집 문 앞이나 동네의 골목 어귀에 조선 초부터 자리 잡았던 시장이다[12]. 이들은 대체로 가가(假家)<sup>11)</sup>라고 불리며 좌판(坐板)에 과일과 견어물 등을 내놓고 판매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는 보편적인 상점의 모습이었다[13]. 또한 도성 내부에서 경작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기에 필요한 물자는 시장에서 얻어야 했으므로 수공예품, 채소, 과일 등의 일상품은 대시(大市)보다 골목에 비정형적으로 포진한 소시(小市)에서 구매하였다.

“시전(市廛)을 정하였으나, 대시(大市)는 장통방(長通坊) 윗쪽, 미곡(米穀)·잡물(雜物)은 동부(東部)는 연화 동구(蓮花洞口), 남부(南部)는 흥도방(薰陶坊), 서부(西部)는 혜정교(惠政橋), 북부(北部)는 안국방(安國坊), 중부(中部)는 광통교(廣通橋)로 정하고, 우마(牛馬)는 장통방(長通坊) 아래 천변(川邊)으로 정하였으며, 여항(閭巷)의 작은 저자[小市]는 각기 시는 곳의 문전(門前)으로 정하였다.”

『태종실록』 10년 8월 7일(5)

태종 10년(1410) 한양의 시전과 중심지를 구획할 당시부터 송현 일원은 안국방의 대시와 면하며 북촌의 양반가와 여염에 둘러싸인 곳이었다. 따라서 송현은 조선 후기 사상(私商)들이 지역의 세력가, 궁방(宮房)과 결탁해 물품이 모이는 도성 내 주요 길목을 장악하였던 시대적 맥락과도 호응하여 오랜기간 상업의 적지로 기능하였다. 18세기 ‘벽장동’<sup>12)</sup> 일대에 시전상인들이 주로 드나들던 기방(妓房)이 많았던 사실도 이를 증명 한다. 앞서 18세기까지 부지 서쪽에는 소나무숲, 북동쪽 대형 필지에는 군자감이 존속했던 정황을 고려하면, 우전으로 대표되는 송현의 상업경관은 고지도부터 20세기에 측량한 도면에 이르기까지 골목이 많고 민가가 조밀하게 표현되는 현재 안국동사거리가 있는 남동쪽 일대였다고 추정된다(그림 5).

## 3) 경화세족의 제택 : 가성각(嘉聲閣)

영·정조를 거치며 조선 후기는 상공업 발달로 자본이 축적되어 여가와 소비문화가 활성화되었고, 청나라의 신문물을 수용하는 북학(北學)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시류에서 문화 집결지 한양에 기존 질서를 따르던 사대부와는 다른 경화세족(京華世族)이 등장하였다[15]. 경화세족은 ‘서화고동(書畫古董)’,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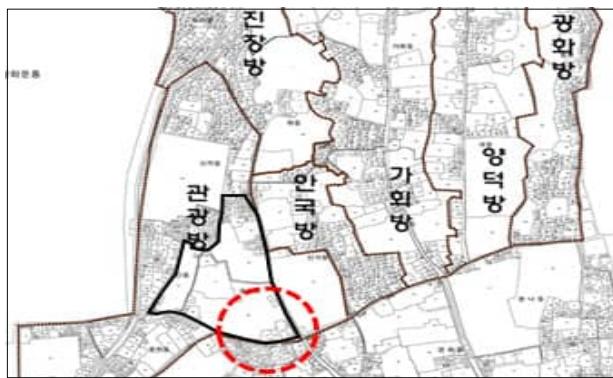


그림 5. 우전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위치('북촌의 방경계 추정복원도' 재구성)[14]

골동품과 서화 등 예술을 이해하여 가치를 찾으려는 실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완상(玩賞) 문화를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신이 소장한 지적 산물로서 서적과 그림 등 각종 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서각(藏書閣)이 필요하였다[16]. 서유구(徐有渠, 1764~1845)는 조선 후기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기술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 독서와 장서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당시 경화세족들이 엄청난 양의 중국 서적을 수입하였고, 장서는 그들의 취미이자 문화로 정착했다고 기록한 바 있다[17].

정조의 신임을 얻어 순조 대에는 누구도 견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버린 19세기의 대표적인 경화세족 심상규, 김조순, 서영보, 이만수, 남공철을 '천생오태사(天生五太史)'라고 부른다. 18세기 말 송현에는 심상규(沈象奎, 1766~1838)<sup>13)</sup>의 제택이 있었다. 그곳에 4만 권의 서적을 소장하였는데 당시 조선에서 가장 많았다고 전해진다. '가성각'이라고 이름 붙은 심상규의 장서각에 대하여 홍한주(洪翰周, 1798~1868)는 중국풍 건축 양식과 각종 진귀한 물건들로 의장한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가성각의 화려함은 1827년 심상규의 탄핵 사유로 언급될 정도였다<sup>14)</sup>.

"대대로 도성에 거주하는 경화세족들은 화려한 저택을 다투어 세웠다. 홍양호(洪良浩)의 사의당, 신위(申緯)의 벽로방(碧蘆舫), 심상규(沈象奎)의 가성각, 김조순(金祖淳)의 옥호산방 등이 18-19세기 도성에서 가장 이름난 저택이었다."

서유구, 「시태손(示太孫)」, 『풍석전집(楓石全集)』[18]

"두실(斗室) 심공(沈公)은 경성 송향(松巷)의 북쪽에 집을 두었다. 바깥 사랑채에서 구부러지는 곳에 비스듬히 두실이 있다. 이 곳을 지나면 난간이 둘러진 정당(正堂)이 있다. '가성각(嘉聲閣)' 이란 편액이 걸어 있는데 옹방강이 80세에 쓴 것이다. 가성각의 동쪽 기둥은 여러 번 중첩되어 있고, 북쪽은 모두 텅 빙 복각(複

閣)이다. 서북쪽은 붉은 담장이 있고 비스듬히 벽돌을 쌓아 둑은 문을 만들었다. … 가성각 앞에는 작은 집 몇 칸을 지어 기화이초(奇花異草)를 심었고, 뜰에는 종려나무를 심었는데 그 크기가 문 설주에 나란하다. 또 상아로 만든 상과 유리로 된 벽이 있는데 모두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들이다. … 공은 성품이 단아하고 엄중하여 음악과 여색을 좋아하지 않고 소란한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여 집 안팎이 엄숙하다. … 우리나라에서는 비교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홍한주, 『지수염필(智水拈筆)』[18]

심상규의 제택은 부친으로부터 유지를 이어받아 도성의 북 송현(北松峴)<sup>15)</sup>에 지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라 불렸음에도 구체적인 위치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홍한주가 언덕 일대를 폭넓게 지칭하던 '峴'이 아닌, 길을 강조하는 '송향(松巷)'이라고 기술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송현 일원은 대형 펼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고지도에 표현된 옛길이 비교적 변형되지 않았다. 조선 초기부터 경복궁에서 안국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송현', 그 상부에 직교하는 옛길로 구획되는 부지의 윈편을 '벽동'으로 인식해왔다(그림 6). 따라서 가성각이 위치했던 "송향의 북쪽"은 벽동(벽장골)을 구획하는 송현의 깊숙한 안길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사료된다.



그림 6. 벽동을 구분하는 옛길('수선전도(1864)')[8]

이 무렵 경화세족은 멀지 않은 거리에 집을 짓고 교유하였기에(그림 7) 이들의 제택은 문화집단으로서 경화세족의 공동적인 성향을 반영한다. 이들은 자신의 생활권 내 경승지를 외원(外園)으로 인식하고 입지를 선정하여 원림(園林)을 확보하였다[15]. 이는 도성 내 번잡한 환경과 구별되는 이상적 공간인 '성시산림(城市山林)' 속 은자(隱者)의 삶을 지향한 결과였다.

『임원경제지』 『이운지(怡雲志)』에는 "원림 내부에는 서책을 수장하는 장서각이 있고, … 대체로 모두 산을 기대고 있거나 시내에 바짝 닿아 있다"고 기록되었다[20]. 따라서 "소란한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여 집 안팎을 엄숙"하게 하고 '아

름다운 소리[嘉聲]’를 지향한 가성각도 이러한 원림관을 따랐을 것이다.



그림 7. 서울시 소재 경화세족의 제택 분포도[19]

한편 18세기 후반 조선에는 새로운 군자의 덕목으로서 동·식물의 이름을 많이 알고 체계화하여 사물을 분류하는 박물학(博物學)이 부상함에 따라서 기이한 화초를 선호하는 풍속이 생겼다[16]. 심상규가 저술한 『두실준고(斗室存稿)』의 「잡영추원화훼(雜詠秋園花卉)」와 「잡영추소(雜詠秋蔬)」 등에서 그도 채마밭을 운영하고 기화이초와 분재, 괴석을 수집하여 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성각에는 당시 청나라에서 신선에 비유되어 귀했던 외래식물인 능소화(凌霄花)가 많았다고 전해지는데[21][22], 건물이 멀실된 1930년대까지 회자될 만큼 능소화는 특징 경관으로서 장소성을 이어갔다<sup>[16]</sup>.

#### 4) 궁가(宮家) : 창녕위궁(昌寧尉宮)

송현 일원에 있던 창녕위궁은 순조 30년(1830) 안동김씨 일가인 김병주(金炳壽, 1819~1853)를 창녕위에 봉하고, 차녀 복온공주(福溫公主, 1818~1832)를 하가(下嫁)하여 지은 궁가였다. 궁가는 궁과 집의 합성어로서 대군(大君)·군(君)·공주(公主)·옹주(翁主)가 출합(出閣)해 살던 살림집을 의미한다<sup>[17]</sup>. 택호(宅號)는 일반적으로 ‘○○궁(宮)’이라 했으며, 소유자의 이름을 붙여 ‘○○공주방(公主房)’, 때로는 ‘○○○가(家)’라고도 하였다<sup>[23]</sup>. 궁가는 출합 이후에도 부모를 찾아뵙거나 왕족의 역할을 수행하기 용이하도록 궁궐 담장 밖 민가 사이에 자리하였는데, 대개 동명(洞名)만 기재되어 정확한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세자가 아닌 종친의 경우 그 존재만 파악될 뿐 실상을 알 수 있는 문헌을 찾기 어려운데, 창녕위궁 역시 순조가 하사한 송현 땅에 위치하였다는 정보 외에 알려진 바가 없다.

조선왕조의 궁가는 새로 집을 짓거나 기존의 궁가나 사가(私家) 등 궐 밖 제택 중 마땅한 것을 매입하여 사용하였다<sup>[23]</sup>. 그러나 인조에서 현종 대에 국고로 개인 주택의 수리 비

용을 지원하는 것과 사가가 존재하는데도 새로 궁가를 짓는 것은 폐단이라고 지적되기 시작하였다<sup>[18]</sup>. 이러한 배경에서 왕권이 약했던 순조 때의 창녕위궁은 기존 제택을 매입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1838년 심상규가 사망한 후 공들여 조영한 제택의 건물들이 헐리고 장서들은 흩어졌으나, “가성각만이 남아” 1870년 무렵에는 ‘귀주궁(貴主宮)’으로 사용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귀주’는 공주나 옹주 등 왕의 여식을 뜻한다<sup>[19]</sup>. 즉, 복온공주와 김병주는 1830년 순조에게 가성각을 하사받았는데, 이는 심상규가 탄핵을 당하여 강원도 이천(伊川)으로 잠시 퇴거했다가 다시 기용되는 1827년부터 1832년까지의 공백 기간과 일치한다<sup>[20]</sup>.

“이 집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이다. 비록 일당과 이당의 장려(壯麗)함이 있긴 하나, 이곳의 안온함과 정치(精緻)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 일당, 이당은 이미 헐렸고 서회는 각 곳으로 흩어졌다. 가성각만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귀주궁(貴主宮)이 되었다.”

이유원, 「가성각(嘉聲閣)」, 『임하필기(林下筆記)』[24]

가성각을 이어받아 창녕위궁에 거주하던 복온공주는 혼인 2년만인 1832년에 요절하고, 김병주 흘로 벽동에 거주하였다. 슬하에 자식이 없어 족형(族兄)의 아들 김도균(金道均)을 양자로 들었으나, 그 역시 일찍 죽자 김석진(金奭鎭, 1843~1910)이 창녕위 집안을 계승하였다. 그는 1905년 창녕위궁을 매각하고 1907년 지금의 강북구 변동에 있는 창녕위궁재사(昌寧尉宮齋舍)로 이사하였다는 행방이 기록되었다. 한편, 1853년 김병주의 사망 당시 기록[卒記]에서 창녕위궁이 심상규의 가성각을 고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몸가짐이 수미(秀美)하고 성품과 도량이 간묵(簡默)하여 … 내려 주 저택에는 하나도 치장을 더하지 않았다. … 원림(園林)의 종고(鐘鼓)는 세상을 잊은 것과 같이 맑았으며, 시절(時節)에 기거하는 외에는 문을 닫고 내책을 거절하여 …”

『철종실록』 4년 2월 19일[5]

#### 5) 조선귀족의 땅 : 벽수거사정(碧樹居士亭)

조선 후기 외척 가문은 세도정치기를 거치며 사회적, 정치적 명망가로 고착되었다. 북촌은 왕실과 외척의 오랜 거주지였으며, 세도가 안동 김씨와 여흥 민씨가 안국동에 거주하였고, 그 와 맞닿은 송현동 일원에는 1906년 순종의 황태자비 간택 이후 장인이 된 해평 윤씨(海平 尹氏) 형제가 살았다. 1912년 「지적원도(地籍原圖)」와 『토지조사부(土地調查簿)』를 통하여 측량에 의한 필지와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 벽동(現 사간동

97-2)과 그 동쪽(現 송현동 48-3, 9)은<sup>21)</sup> 윤덕영(尹德榮, 1873~1940)과 그의 동생 해풍부원군 윤택영(尹澤榮, 1876~1935)이 소유하고 있었다(그림 8)<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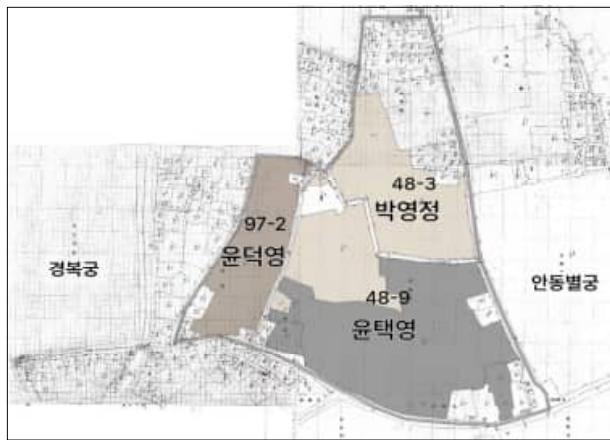


그림 8. 1912년 송현 일대의 필지별 소유주[25]

1910년 윤씨 형제는 일본 천황으로부터 '조선귀족(朝鮮貴族)'<sup>23)</sup>이라는 작위를 얻었다. 특히 이완용(李完用), 민병석(閔丙奭, 1858~1940) 등과 함께 '경술국적(庚戌國賊)'이라고 알려진 윤덕영은 조선왕실의 천황 방문 추진을 위해 고종을 압박하고, 경술국치(庚戌國恥) 당시에는 자신의 조카딸 순정효황후에게서 옥새를 빼앗아 늑약을 체결시켰다. 이로써 그는 자작이라는 작위와 함께 막대한 은사금을 받아 조선 제일의 부호가 되었다.

윤덕영의 호 '벽수'는 '벽동(碧洞)'의 나무(樹)가 많은 곳'이라는 뜻이다. 그의 집은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했는데, 순종이 '벽수거사정'이라는 현판을 하사했을 정도였다. 그는 이를 기념하고자 당대 최고의 문인과 화가를 불러 1909년 「벽수거사정도」<sup>24)</sup>를 제작하였다. 스케치 초본(그림 9a)에서

고지대였던 벽동<sup>25)</sup> 윤덕영의 집 서쪽으로 인왕산의 산세가 푸르하게 표현되었으며, 정원에는 많은 분재를 두고 가산(假山)을 세워 정자를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보존 상태가 불량하지만 비단에 그린 정본(그림 9b)에는 수목과 건축물의 구조가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정원의 중심에 노송과 은행나무 두 주가 있고, 오동나무, 벼드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 교목과 각종 기화이초가 식재되었다.

그림 뒷면의 기문(記問)에서 벽수거사정은 새로 조성된 것 이 아니라 은행나무 두 주가 있던 벽동의 원림을 매입하여 꾸몄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고종 광무 10년(1906)에 작성된 호적에 2천 평에 달하는 대규모 필지였던 사간동 97번지가 민병석의 소유라고 기록되었는데<sup>[28]</sup>, 이는 1905년에 김석진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1906년 순정효황후가 입궁하면서 정재계 핵심 인사가 된 윤덕영이 벽동 일대를 전부 매입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1905년 왕실로부터 벽동에 있는 큰 집을 사제(賜第)로 받았다"와 "1906년 민병석의 집을 매수하였다"라고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1906년을 기점으로 간동 97번지(벽동)에 윤덕영이 머물렀음을 분명하다<sup>[30]</sup>. 윤덕영의 저택 부지가 표기된 「경성 부시가도(1911년)」에서 벽동은 '은행동(銀杏洞)'이라고 표기되었는데(그림 10), 이는 1906년 벽수거사정이 지어지기 전부터 존재하던 두 그루의 은행나무 노거수로부터 기인한 동명이었을 것이다.

"민병석씨의 가사(家舍)를 고의정 윤용선씨의 장례(長溪) 덕영(德榮)씨가 일백십이만냥에 매수하였는데"

"閔氏移家", 『황성신문』, (1906.12.15.) [29]

"을사(1905)년 겨울에 윤자작의 수양부 이용복이라는 이의 주선으로 그때 벽동에 있는 큰 저택을 나라에서 사제하시고"

"불국귀족의 저택설계로 조선한양에 '아방궁' 건축"

『조선일보』, (1926.5.31.) [29]



a. 「벽수거사정도」 초본, 지본수묵

b. 「벽수거사정도」 정본, 견본채색

그림 9. 안중식, 1909, 「벽수거사정도」, 개인 소장[26]



그림 10. 「경성부시가도(1911)」[8]에 표기된 벽동과 은행동

또한 1915년에 측량한 지도(그림 11a)에서 윤택영의 집이 부지 북쪽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 두 형제의 집이 구름다리로 연결되었다는 기록을 참고하여 벽수거사정은 ‘윤택영 저(邸)’의 담장이 끊기는 북서쪽 모서리 부근의 길 건너편에 위치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해당 위치에서 벽수거사정의 ‘ㄱ’자와 후원의 정자 평면, 남쪽으로 길게 난 담장의 형태가 확인된다. 한편, 윤택영이 벽동에 살기 이전인 1903년에도 이곳을 은행동이라고 불렀다(그림 11b). 따라서 기존 은행나무가 거목(巨木)으로 성장할 만큼 오랜 기간 벽동에 자리했던 이름난 원림을 윤택영이 1906년에 매입한 것이며, 앞서 고찰한 가성각과 창녕위궁이 그 전신이라고 추정된다.



그림 11. 벽수거사정의 추정 위치

#### 6) 관사단지 : 조선식산은행 사택마을

1910년 강제병합 이후, 대한제국의 수도 경성은 민족별 활동지가 나뉘는 ‘이중도시’의 면모를 띠면서 청계천을 기준으로 조선인들의 북촌과 일본인들의 남촌으로 구분되었다. 일제는 1912년 경성시구개정사업을 통해서 북촌의 ‘안국洞’<sup>27)</sup>과 남촌의 ‘황금町’을 중심으로 광장과 방사형 도로를 조성하여 두 지역을 잇는 계획을 세웠다(그림 12). 따라서 동심자각에서 안국

으로 이어진 송현 언덕 일대가 주요 정비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림 12. 「경성부명세신지도(1914)」[8]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를 경복궁으로 이전하면서 도로를 확장하여 울곡로를 조성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그간 남촌보다 낙후되었던 북촌도 도로망을 갖추었고, 1929년에는 경복궁에서 열리는 조선박람회 일정에 맞추어 용산역에서 총독부청사와 창덕궁을 잇는 전차 노선이 개통되었다. 이로써 송현 남동쪽 안국동 광장은 북촌에서 가장 ‘근대적인’ 장소가 되었다(그림 13).



그림 13. 전차 노선을 완비한 1931년경 송현동 일원[33]

1920년대에 경성의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총독부는 관사단지 조성을 장려하였다. 일제강점기 경성 곳곳에 지어진 관사단지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정형화된 배치 특성을 보인다. 서민 주거와 차별화하면서 안전을 보장받기에 유용한 단독주택 구조를 취하고, 단지 전체를 구획하는 담장과 대문을 두어 외부와 차단하고 내부에 격자형 가로망을 두어 효율성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성의 관사단지는 대량 생산과 생활의 효율 등 근대적 가치관을 반영한 주거공간을 선도하였고, 이후 중산층 도시 주택의 이상적인 모델로 작용하였다.

교통이 발달하고 관공서와 교육·의료시설이 밀집한 송현 일원의 중심에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產銀行)의 직원 사택(社宅)<sup>28)</sup>이 지어졌다. 윤택영은 딸의 간택을 도모하면서 막대한

빛을 지게 되자 1919년부터 송현동 부지를 조선식산은행에 매각하였다. 20년에 걸쳐 송현동 일대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38년에는 맞은편의 간동 일대 부지까지 사들여 대규모 사택단지가 완성되었다. 도심 속 대형 필지와 인력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를 갖추었던 송현 일원은 택지 조성의 적합지였다. 당시 북촌의 조선인들에게 이러한 조선식산은행 사택단지는 ‘식은촌(殖銀村)’이라는 외부인 마을로 인식되었다.

이곳에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근대식”的 “굉장한 사택”이 34채나 있었고, 집집마다 화려한 정원이 조성된 고급 문화주택 단지였다. 이는 주변의 열악한 민가 풍경과 대조되면서 “조선인 경성의 몰락”으로 여겨졌다[34]. 「경성도(1922년)」와 「대경성부대관(1936년)」에서 사택단지의 건물 배치를 볼 수 있다. 조성 초기 단지 내부는 독신자들을 위한 ‘합동숙사(合同宿舍)’, 고위급 직원을 위한 2층 규모의 ‘갑(甲)호 사택’ 등 다양한 구조의 주택이 필지 열(列)을 이루었다(그림 14a). 대체로 남쪽에 담장을 둘러 정원을 배치하였는데(그림 14b), 가족들이 지내는 사적인 공간을 남향으로 두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진입로와 대문은 북쪽으로 우회한 것이다[35]. 이와 같은 조선식산은행 사택은 선진적 주택 형태로서 이후 상류층 주거의 모방 대상이 되었다.

1921년 벽동(간동)은 벽수거사정 평면이 온전히 확인되지만(그림 14a), 1935년에는 필지가 분할되고 작은 민가들로 대체되었다(그림 14b)[29]. 이처럼 1920년대 경성의 주택난 심화로 인해 중대형 필지들은 대거 분할되었다[36]. 오랫동안 대형 필지로 유지되었던 송현 일원에 들어선 식은촌은 조선인들에게 위협적이면서도 한편으로 북촌의 근대화를 인식하게 만드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경복궁 대궐을 중심으로 경성의 북부를 향해 일본인의 세력이 날로 침범한다 … 이러한 이유로 가련한 조선사람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믿고 살던 북부의 한구석에서도 살 수가 없이 되고 문(사대문)밖으로 나가 시골로 쫓겨가는 형편이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북점”, 『동아일보』,  
(1923.10.26.) [37]

“… 이제 이 유일한 조선인 은거지가 장내의 희망이 있게 되자 또 다시 일본인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안국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일대는 원래 관공사립의 각종학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근년에 이르러 송현동에는 돈 많은 식산은행의 사택이 한 촌락을 이루었고 겹하여 안국동 전차도 개통되었으며…”

“조종을 울리는 조선인 경성의 말로”, 『동아일보』,  
(1924.03.09.) [37]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이 조선식산은행 사택을 사용하였고, 1948년 9월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근거하여 “미국이 관심을 갖는 재한국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선식산은행 소유재산 전부”는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이양되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무렵에 단독주택 형태였던 조선식산은행 사택이 철거되고 콘크리트 한옥 지붕을 얹은 신축 연립주택 단지로 대체되었다. 이후 1997년 삼성그룹에게 인수되어 사택단지로서 기능은 상실하지만, 위성사진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구획했던 필지와 도로 구조는 변형되지 않은 채 2003년까지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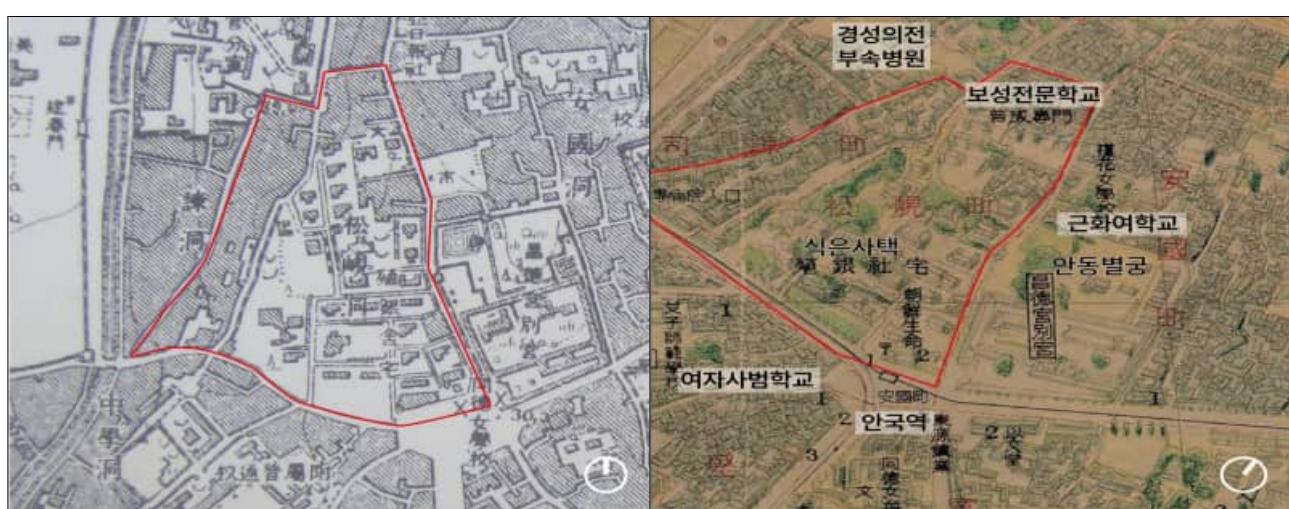


그림 14. 조선식산은행 사택의 평면도와 조감도[8]



a. 1962년 송현동 일원

b. 2003년 송현동 일원

그림 15.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배치[38]

## 2. 송현동 일원의 역사문화경관 해석

살펴본 바와 같이 송현동 일원은 국유림에서 사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소유주가 확인된 만큼 경관의 변화도 빈번하였다. 역사문화경관의 물리적 실체로서 환경적 요인과 경관 인식이 집약된 개별 경관을 이해하였으며, 이들을 존속기간에 따라 하나의 영역에 배치함으로써 시대상에 따라 이해되었던 입지관을 파악하였다(그림 16).

### 1) 1392년~19세기 : 경복궁의 내청룡

백악산과 응봉의 지맥이 연장된 고갯마루를 기준으로 북촌에는 다섯 개의 언덕이 있는데, 송현은 동십자각에서 안국동까지 이어지는 고갯길에 해당되는 지명이었다. 송현을 관통하는 언덕은 풍수지리사상에 의해 경복궁을 짓기 시작한 1392년부터 경복궁의 내청룡 지맥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보전하려는 관(官) 주도의 소나무 식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숲이었다. 삼청동천과 안국동천이 좌우로 흐르는 수계의 흔적을 통하여 당시 송현은 북서쪽이 높고 남쪽으로 낮아지는 지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가진 벽동에서 19세기까지 소나무숲이 유지되었다. 궁궐의 비보림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내청룡 송림이 오랜 기간 존속된 것이다.

### 2) 1410년~18세기 : 여향(閨巷)

여말선초부터 국곡(國穀)을 관리한 군자감은 1410년 이후 도성 내 세 곳이 운영되었다. 이 중에서 송현 분감은 1746년까지 존재하였고, 민가 사이에 기와를 올린 80여 칸에 달하는 좌우 행랑과 화방장(火防牆)을 두른 구조로 자리하였다. 당대 일반적인 창고의 입지 선정에 관한 기록을 『승정원일기』<sup>30)</sup>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대체로 도성 내 넓은 땅에 두고 백성들을 주변에 거주시킴으로써 위급 상황에서 물자 운송과 국가재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39]. 이러한 맥락에서 물자 운반이 용이하고 치안이 좋은 궁궐 옆이면서도 동원할 여유까지 충분했던 송현 일원은 창고의 적지였다. 송현 분감이 폐지될 즈음이 표현된 「한양전도(1780)」에서 소나무가 무성한 벽동의 오

른편은 상대적으로 평坦한 대형 필지가 확인되는데, 이 인근에 분감이 자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양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핵심 요소였던 시전 중에서 북부의 대시가 안국방에 있었다. 따라서 군자감의 조세 운반로와 대시 통행로가 교차하는 안국동사거리 일대는 국초부터 재화와 사람이 몰려들었다. 조선 후기에 급증한 영세한 골목 상권은 북촌의 양반 세력가와 결탁하여 길목에 우전을 설치하고 과일을 판매하는 상업경관을 형성하였다. 송현 우전의 위치는 운수로의 어귀이자 민가가 밀집한 골목[閨巷]이 발달했던 대상지 남동부(現 송현동 48-9)로 추정된다. 1410년 전후 소나무 숲 우측은 민가에 섞여든 군자감의 거대 행랑과 골목마다 자리 를 엮던 과일시장으로 활기찼던 여향인들의 주요 활동지였다.

### 3) 18세기 말~1920년대 : 성시산림(城市山林)

내사산의 지맥 비보를 위한 소나무숲이 자리했던 벽동은 왕실의 적극적 보호 아래 엄격히 규제된 금산(禁山)에 해당하였다. 연산군 10년(1504) 금산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서 수많은 민가가 철거되었고, 이에 대한 불만은 점차 한양의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논쟁으로 번졌다. 이후 중종~명종 때 빈번한 사화(土禍)로 인해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서 권리가들이 도성 내 산림을 점유하였다[40].

조선 후기 경화세족의 원림은 도성 내에 있으면서도 속세와 구별되는 도심 속 산림의 입지를 지향하였다. 벽동 상부에 위치한 심상규의 제택도 소나무로 위요되어 여염과는 단절된 은자(隱者)의 공간이었다. 그가 사망한 후에도 장서각인 '가성각'은 남겨져서 1830년 복온공주와 창녕위 김병주에게 하사되어 '창녕위공'으로 존속하다가 1906년에는 윤덕영의 매입으로 '벽수거사정'이 된다. 화려한 조경으로 유명해진 벽동은 인왕산을 조망했던 한양의 성시산림 중 하나였다.

### 4) 1919~2003년 : 이상적 건강지(理想的 健康地)

일제강점기 초반 경성은 청계천을 기준으로 조선인들의 북촌과 일본인들의 남촌으로 구분되었다. 변화한 남촌에 비해 초기 조선인들의 공간은 낙후된 퇴거지로 여겨졌으나 1920년대에 일본인들의 북진이 시작되면서 격차가 좁혀졌다. 경성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난이 심화되자 관사단지 조성이 장려되었고, 이들은 도성 내 대형 필지나 국유지 임야에 들어섰다[35]. 단지에는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차량 통행을 위한 포장도로 등 각종 근대적 설비가 도입되었다. 이는 1920년대 중반 이후 재경성 일본인들 사이 살기 좋은 도시 주택지로 통용되던 입지관이 반영된 결과였다. 당시 '이상적 건강지'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첫째, 상·공업지역의 번잡함과 오염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둘째, 산을 등지면서 수목이 많은 남향의 땅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망이 좋고 시내와 가까워 편리함을 갖춘 곳이라는 조건을 만

족시켜야 했다. 특히 집의 뒤편에 산을 두른 남향의 도심 속 주택지는 일본에서는 낯선 조건으로서, 식민지 한반도 환경에 맞추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모색한 결과였다[41].

일제강점기 송현동 일원에 조성된 식은총은 해방 후 1948년부터 미국이 그대로 사용하여 필지와 도로 구조가 변형되지 않은 채 2003년까지 지속되었다. 즉, 근대를 거치며 송현 일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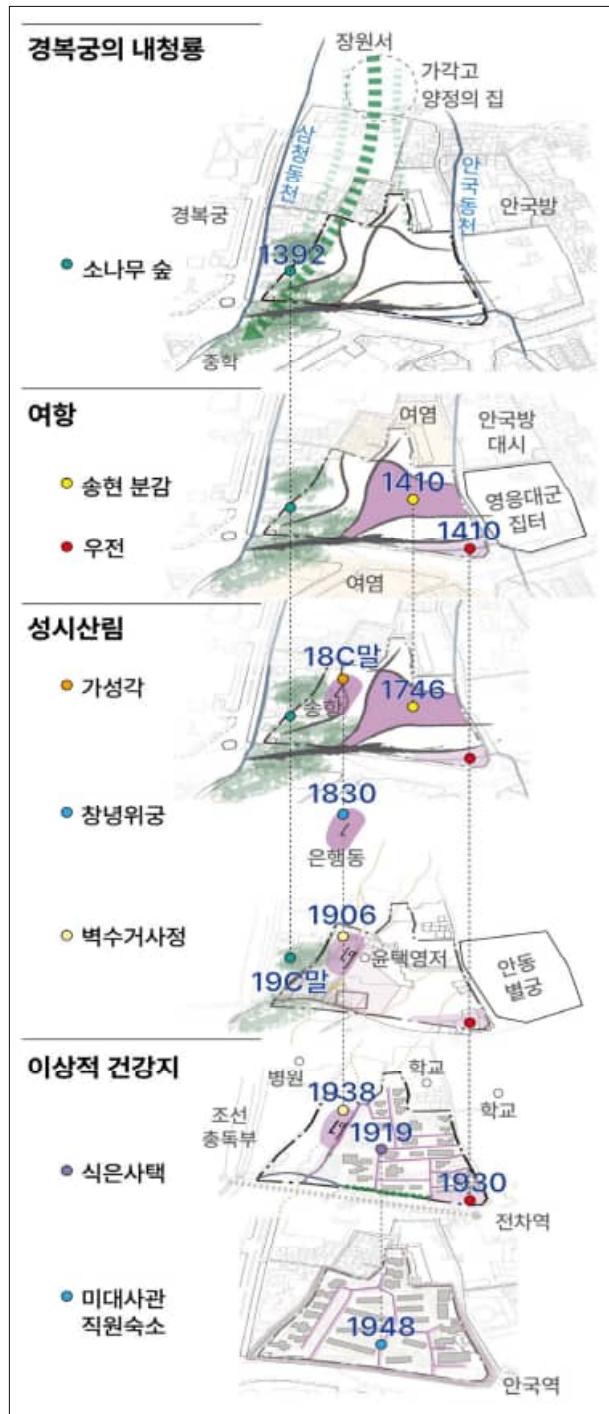


그림 16 솔현동 일원 역사문화경관의 층위

열악한 조선인 주거지와는 단절된 외부인들만의 이상적인 주거지가 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송현동 일원에는 자연녹지와 물길, 조선 상류층 가옥, 창고와 상업시설, 단지를 구획한 도로와 필지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축적되었다(그림 17). 이러한 송현동 일원의 역사문화경관은 풍수지리에 따른 전통적 입지관 ‘지리(地理)’로 이해할 수 있는 소나무숲이 성시산림으로서 ‘산수(山水)’를 제공하였으며, 경복궁에 인접함으로써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생리(生利)’를 만족시켜 일찌감치 여향이 발달한 땅이었다. 일제강점기 근대 주거단지의 조성은 시대적 요구와 호응하며 조선 전시기에 걸쳐 전통적 복거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송현동 일원의 장소성을 단절시킨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림 17. 송현동 일원의 역사문화자원

IV. 결론

본 연구는 현재 도심 속 공터로 남은 송현동 일원에 조선시대부터 축적된 통시적 역사문화경관요소를 추출하고, 이들을 실제 공간에 위치시킴으로써 역사문화경관의 물리적 실체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송현동 일원의 경관은 조선 건국과 함께 경복궁의 내 청룡으로 인식하여 관리한 '경복궁 동쪽 언덕의 소나무숲'으로 시작되었다. 19세기에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화려한 정원이 꾸려진 가성각, 창녕위궁, 벽수거사정으로 지속된 성시산림이 자리잡았다. '지리'와 수려한 '산수'를 갖추었던 여염 속 상류층 주거경관을 보여준다.

둘째,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물자의 이동과 관리가 용이한 벽동의 오른편 평坦한 대형 팔지에는 군자감의 송현 분감이 자

리잡고, 안국방의 대시와 가까운 여염 골목에는 우전 등 상업경관이 발달하였다. 이곳은 ‘생리’와 ‘인심’을 만족시킨 땅이었다.

셋째, 일제강점기에 근대 설비와 기반시설이 도입된 조선식 산은행 사택이 들어서고 ‘식은촌’이라고 불린 대규모 관사단지는 경성의 상류층 주거 양식을 선도하였다. ‘이상적 건강지’라고 이해된 근대적 입지관은 전통적 복거관으로 지속되었던 송현동 일원의 장소성을 단절시켰다.

오랜 역사의 케를 담고 있는 송현동 일원의 장소성을 소나무 숲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된 본 연구는 필지의 소유주 파악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경관의 연속성을 완전하게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후속 연구와 함께 송현동 일원의 문화공원 조성 계획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 1) 세종의 왕자 영옹대군(永膺大君, 1434~1467)의 집이 현재 안국동사 거리에 해당하는 ‘안동별궁 터’에 있었다.

주 2) 조선 초기 한양을 방위에 따라 5부(部)로 나눈 후 52개의 방(坊)으로 구획하였는데, 그중 경복궁 바로 옆에서 ‘임금의 성덕의 빛을 바라본다’는 뜻의 관광방(觀光坊)은 현재의 송현동과 일치하는 중학계(송현동, 벽동, 간동)와 대안동계(소격동)의 행정구역명이었다[42].

주 3) 군수와 군량의 확보를 위한 국영 수조지(收租地)이나, 조선 초기에는 유승억불 정책에 의한 사원 축소로 발생하는 사사전(寺社田)이나 개인의 수세지, 짐지어는 범죄자와 사망자의 과전(科田)까지도 군자전으로 편입하였다[10].

주 4) 송현 분감은 별감(別監), 별창(別倉), 송현창(松峴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별도 추가된 창고 혹은 군자감을 지칭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기록된 ‘분감’이라고 표현한다.

주 5) 『중종실록』 25년 1월 19일[5]

주 6) 『태종실록』 13년 4월 17일[5]

주 7) 『속대전(續大典)』의 ‘창고(倉庫)」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옛 3감 중에 “경감과 분감은 이번에 폐지하고” 강감만 남았다는 기록이 있는데[5]. 속대전의 발간연도가 영조 22년(1746)이므로 송현의 군자감이 18세기 중엽까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주 8) 조선시대 창고는 구휼정책과 직결되어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수준의 방화대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방화벽이 창고 건축물의 특징인데, 군자감의 화방장은 단종 1년(1452년) 기록에 의하면 최고급 재료인 벽돌과 석회로 마감한 형태였다고 전해진다[39].

주 9) 『세종실록』 30년 12월 14일: 32년 1월 29일[5]

주 10) 민가(民家), 사대부가(士大夫家), 궁가(宮家) 등 조선시대 주택건축을 지칭하는 단위 주호로서 살립집을 말한다[23].

주 11) 가게를 부르던 옛말로, 조선 초 임시로 잡다한 물건을 길에 늘어놓던 것이 점차 통행인을 겨냥한 판매 행위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주 12) 길게 난 길로 동네의 모습이 길고 좁은 벽장( 달각)의 모양과 닮아 생긴 지명으로,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도 ‘벽동(壁洞)’으로 나타나지만,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때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부터 ‘벽동(碧洞)’이라고 표기되었다.

주 13) 호는 두실(斗室)로 본래 이름이 있었으나, 정조의 지우(知遇)를 받은 뒤 상규라는 이름을 하사받을 정도로 정조의 총애를 많이 받았던 인물이다. 정조 13년(1789)부터 문과로 급제하여 정조를 보필하

며 규장각에서 근무하였고, 순조의 장인이 된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의 안동김씨 세도 정권에 편승하여 영의정까지 올랐다. 순조 사망 이후 원상(院相)으로서 현종의 초년까지 정국을 이끌었다.

주 14) 『순조실록』 27년 3월 23일[5]

주 15) 한양 내 ‘송현’이라는 지명은 대상지인 북부 관광방 외에도 서부와 남부의 회현방 일대(現 남대문로 3가)에도 나타난다. 초기부터 도성 내 중심지로 인식되어 온 전자와 달리 후자가 언제부터 ‘송현’이라고 불렸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영조 31년(1755) 인조(仁祖, 1595~1649)의 잠저였던 ‘송현궁’을 ‘저경궁’으로 개칭하면서부터 남부의 송현이 자주 기록에 언급되었다. 따라서 조선후기부터 ‘북송현’과 ‘남송현’을 구분하는 용례가 나타난다. 그러나 심상규와 동시대에 기록된 『한경지략(漢京識略)』에서 그의 집이 ‘북쪽 송현’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이른 시기부터 사료에 언급되어 온 송현이 관광방의 송현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서울시 남대문 북창동 일대를 심상규 집터라고 이해하는 오류는 수정되어야 한다.

주 16) “북송현(北松峴)은 오늘날 수송동사법학교로부터 선일지물회사에 이르는 일대의 땅으로 두실(斗室)은 순조조(純祖朝) 대신(大臣) 심상규(沈象奎)이니, 이 집에도 능소화가 있었으나 오늘날 와서는 … 그 자취를 찾을 수 없고 …”[43]

주 17) 혼례를 치른 왕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세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궁궐을 떠나 거처를 마련하던 관례를 말한다.

주 18) 공주의 출합에 따른 제택사여 문제는 인조 1년(1623)의 정명공주(貞明公主, 1603~1685)와 효종의 다섯 공주들 사례를 기점으로 논쟁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18세기까지도 폐단 사례로서 자주 인용되었다(『영조실록』 5년 1월 21일 참조).

주 19) 『영조실록』 11년 6월 1일 기사에서는 “귀주(貴主)의 혼례는 아직도 멀었는데 … 전하게서 사책을 두루 상고하시더라도 제왕의 자녀들의 제택(第宅) 문제에 있어서 … 효종·현종·숙종 시대에 공주의 제택을 가지고 말한 경우가 이루 해아릴 수 없는데 … 전하게서 귀주에 대하여 오로지 마땅히 겸소하고 …”와 같이 이현궁의 폐단을 논하는 상소문에서 당시 귀주 제택이 곧 공주가 출합할 제택이자 궁가를 뜻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순조실록』에서 귀주가 숙선옹주를 칭하던 것(2년 11월 17일), 복온공주의 집을 ‘주제(主第)’라 한(32년 5월 12일) 다수의 기록을 통하여 귀주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주 20) 『순조실록』 27년 4월 8일: 32년 윤9월 22일[5]

주 21) 동(洞)은 지형 특성에 따라 자연발생한 취락에 편의적으로 붙였던 용어이다[14]. 그러나 1910년 이후 ‘방-계-동-통-호’의 기준의 구역 체계를 폐지하고,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필지 구획과 함께 새 지번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벽동’·‘은행동’, ‘고리정동’ 역시 관습적인 동명이며, 근대 이후 토지조사부 상의 행정 동명은 전자는 ‘사간동(司諫洞)’ 혹은 ‘간동(諫洞)’, 후자는 ‘송현동(松峴洞)’이다.

주 22) 1912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송현동 일대의 해평윤씨 소유 가대를 『지적원도(1912)』 위에 표기하였으며, 박영정(朴泳貞)은 윤택 영의 큰형수였으므로 해평윤씨 소유로 해석한다.

주 23) 1910년 일제는 황실령 제14호 「조선귀족령」을 공포하여 종친과 고위 인사에게 작위를 내려 조선 강점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였다.

주 24) 2018년 처음 공개된 작품으로, 심전(心田) 안중식(安中植, 1861~1919)이 그리고,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 1850~1927)이 제시와 기문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덕영에 의하여 1909년 완성된 이 그림은 기문이 같이 전해져 1910년대 조선 최상류층 주택을 상세히 묘사한 데에 의의가 있다.

주 25) 서울역사박물관(2020)은 『청계천지천연구』에서 1915, 1921년의 「일만분일 조선지형도집성」과 1930년대의 「경성지도」를 보정하여 GIS를 통하여 근대건축물이 들어서기 전 한양의 복원 지형도를 작성하

- 였다. 1912년 송현동은 30m에서 북서쪽으로 점차 고도가 높아지는 지형이었는데, 벽동은 35~37.5m로 송현동과는 고저차가 컸다.
- 주 26) “윤덕영이 큰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는 벽동의 원정(園亭)을 사서 잘 가꾸었고, …”[27] ‘정(亭)’은 좋은 집을 넓게 통칭하기도 했는데, 중국에서 원림 자체를 ‘원정(園亭)’이나 ‘정원(亭園)’이라고 부른 용례가 다수 나타난다.
- 주 27) 한 도시 내 일본식 지명과 조선식 지명의 공존은 경성의 이중도시적 성격이 직관적으로 표현되는 사례였다. 1924년 6월 1일 『개벽』에서는 경성 내 정(町)은 ‘마치’라는 일본어로 불리야 하며 “일본인의 독천지”이고 동(洞)은 ‘골’이라 불리야 제맛이라며 “옛날 주인인 조선인 최후의 퇴거지”라고 둘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5].
- 주 28) 관 주도의 공공 주택 또는 집단주거시설을 통칭하여 ‘관사(官舍)’라 하며, 그중에서 단독주택 형태를 ‘사택(舍宅)’이라고 불렀다. 또 한 민영기업이 제공하는 주거시설은 ‘사택(社宅)’으로 구분하였다 [44]. 조선식산은행 사택(이하 식은사택)은 지도마다 ‘舍宅’과 ‘社宅’이 혼용되는데, 구조적으로 단독주택 형태의 고급 문화주택 단지이기도 했고, 은행이라는 기업임에도 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었다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두 가지 모두 쓰였다.
- 주 29) 사간동 97번지의 소유주는 1936년까지 윤덕영으로 나타나지만, 1910년 이후부터 1920년대 후반까지 그는 ‘벽수산장(碧樹山莊)’으로 알려진 옥인동 47번지 일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 대신 사간동에는 동생 윤택영이 거주하였는데, 당시 기사를 통하여 벽수거사정이 1934년까지도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45][46].
- 주 30)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6월 9일[39]

## REFERENCES

- [1] 서울특별시(2020).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구)미대사관직원숙소부지 일대 공원(문화공원) 결정.
- [2] 정승호, 김수진(2015).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의 우선순위 - 광화문 대한항공소유 관광호텔부지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학술발표논문집. 6(-): 729-748.
- [3] 김웅래, 서봉교(2020). 공공성을 고려한 체류형 문화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0(2): 663-664.
- [4] 박대한(2013). 서울시 대한항공부지 공원화 설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6] 남권희(1986). 架閣庫考. 서지학연구. 1(-): 129-156.
- [7] 서울특별시(2015). 국역 경성부사 1. 서울: 휴먼컬처아리랑.
- [8] 서울역사아카이브(<https://museum.seoul.go.kr/archive>).
- [9] 문화재청(2006). 사진으로 보는 경복궁. 대전: 문화재청.
- [10] 이장우(1988). 朝鮮初期 軍資監에 대한 一考察. 역사학보. 118(-): 31-69.
- [11] 허영록(1995). 조선시대 도시계획의 기본요소로서 시전에 대한 연구. 서울학연구. 6(-): 67-98.
- [12] 국사편찬위원회(2005). 한국문화사 3 : 거상, 상권을 장악하다.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13] 이규목(2001). 서울 근대도시경관 읽기-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4] 정정남(2015). 18세기 이후 한성부 북부 6방(坊)의 주거 정체적 구조. 서울학연구 61(-): 113-156.
- [15] 최정민, 서영애(2015). 정원 조영의 주체로서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문화와 정원관.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1(2): 77-87.
- [16] 김정화(2017). 우리나라 식물원의 기원과 진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7] 강명관(1996).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 18, 19세기 京華世族, 민족문화사연구. 9(-): 171-194.
- [18] 이종묵(2008).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四宜堂. 한문학보. 19(-): 567-592.
- [19] 김동현(2015).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원림특성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 교석사학위논문.
- [20] 서유구 저. 안대희 편(2005). 산수간에 집을 짓고. 파주: 돌베개.
- [21] 대통령경호실(2007). 청와대와 주변 역사·문화유산. 서울: 대통령경호실.
- [22] 장림, 양유선, 성종상(2019). “한정우기 ‘종식부’를 통해 본 식물의 상징성과 완상 방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7(2): 30-39.
- [23] 주남철(2003). 궁집(宮家). 파주: 일지사.
- [24] 박철상(2008). 경화세족과 심상규의 가성각. 국회도서관보.
- [25]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 [26] 국립현대미술관(2018). 대한제국의 미술: 빛의 길을 꿈꾸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전시도록.
- [27] 강민경(2021). 金澤榮의 1909년 歸國과 安中植 筆 ‘碧樹居士亭圖’. 미술자료. 99(-): 30-49.
- [28] 정정남(2011). 漢城府의 ‘統戶番圖’ 제작과정을 통해 본 大韓帝國期觀光坊 대형필지의 변화양상. 건축역사연구. 20(1): 7-22.
- [29]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www.nl.go.kr/news\\_paper](https://www.nl.go.kr/news_paper)).
- [30] 김해경(2016). 벽수산장으로 본 근대정원의 조영기법 해석. 서울학연구. 62(-): 59-93.
- [31] 한강문화재연구원(2012). 서울 송현동 유적. 유적조사보고 31.
- [32]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 [33] 서울역사박물관(2019). 북촌, 열한 집의 오래된 기억. 서울역사박물관 전시도록.
- [34] “내동리 명물 송현동 식은촌”, 『동아일보』, 1924. 06. 29.
- [35] 김명숙(2003). 일제시기 경성부 소재 총독부 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6] 조준범, 최찬환(2003). 필지 분합을 통해 본 서울 북촌 도시조직의 변화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2): 125-132.
- [37]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 [38]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
- [39] 이지희, 홍원화, 이수호(2015). 조선시대 창고 건축물의 방재대책 및 화재 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1(7): 127-134.
- [40] 김현숙(2008). 조선시대 한성5부의 금산 및 금표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3): 87-92.
- [41] 이경아(2019). 경성의 주택지: 인구 폭증 시대 경성의 주택지 개발. 서울: 도서출판 집.
- [42] 서울역사편찬원(<https://history.seoul.go.k>).
- [43] 문일평, “화하만필”, 조선일보 1934. 06. 01.
- [44] 이영남, 정재정(2017). 일제하 서울의 대단위 철도관사단지의 조성과 소멸. 서울과 역사. 97(-): 215-256.
- [45] “산명으로 이스”, 대한매일신보 1910. 02. 12.
- [46] “윤후작저화재”, 조선일보 1934. 03. 27.

원고 접수 일: 2021년 11월 3일  
 심사 일: 2021년 11월 25일 (1차)  
 게재 확정 일: 2021년 11월 25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